

# 韓 · 日 상금선두 박성현 · 이보미 '격돌'

## KLPGA 투어 최대 상금 규모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출전...다펜딩 챔피언 조운지 '타이틀방어' 주목

올 시즌 한국과 일본 무대에서 최고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성현(23·넵스)과 이보미(28·노부타그룹)가 국내 무대에서 격돌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16(총상금 12억원)'이 14일부터 나흘간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키야드 골프클럽(파72·6623야드)에서 열린다.

지난해 처음 열려 올해 2회째인 이 대회는 총상금 12억원, 우승상금 3억원의 KLPGA 투어 최대 상금 규모를 자랑한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외에 1억원 상당의 대형 SUV 차량인 BMW X5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대회 규모에 걸맞게 출전 선수도 화려하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최정상급 기량을 과시하며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보미가 약 2년 7개월 만에 KLPGA 투어에 출전한다.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로는 2013년 10월 '하이틴즈 챔피언십'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올 시즌 JLPGA 투어에서 2승과 함께 개막전을 제외한 11개 대회 연속 '톱5'에 들며 상금랭킹, 메르세데스 랭킹(올해의 선수)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올 시즌 KLPGA 투어 4승의 박성현도 US여자오픈에서 막판까지 우승 경쟁을 펼치며 공동 3위에 오른 여세를 몰아 시즌 5승에 도전한다.

박성현은 KLPGA 투어 상금 순위는 물론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도 1위다. 올 시즌 KLPGA 투어 10개 대회에 출전한 톱10에 들지 못한 대회는 단 2번 뿐이다.

톱10에 든 8개 대회 중 7개 대회에서 우승 4회, 준우승 1회, 공동 4위 2회 등으로



올 시즌 한국과 일본 무대에서 최고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성현(23·넵스)(왼쪽)과 이보미(28·노부타그룹)(오른쪽)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16'에 출전한다.



1개 대회를 제외하고 모두 5위 안에 들었을 만큼 이보미의 성적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더욱이 박성현은 US여자오픈을 통해 미국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얻었다. LPGA 투어 5개 대회 도전 만에 메이저 우승까지 넘볼 수 있는 실력을 입증했다.

다만 휴식없이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강행군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

이번 대회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각종 포인트는 메이저 대회와 같다. 우승할 경우 70포인트의 대상 포인트를, 310포인트의 신인상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 이번 대회에서 성적이 각종 순위 부문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5년 만에 우승하며 상승세를 탄 '다펜딩 챔피언' 조운지(25·NH투자증권)는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이밖에 상금순위 상위 선수인 장수현(22·롯데), 고진영(21·넵스), 이승연(25·NH투자증권), 조정민(22·문영그룹) 등이 모두 참가해 각축전을 벌인다. /김민근기자

### 세계태권도선수권 성공기원 한마당 축제

세계 26개국의 태권도인 2,017명이 한 자리에 모여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기원을 기원한다.

18일 오후5시 전북도청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회가 열리는 2017년을 상징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인과 전북 도민 2,017명이 공식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본 행사: 축하공연과 준비상황보고회 순으로 진행된다.

조직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당시의 뜨거운 열기를 되살리고, 도민과 태권도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그 열정을 대회 개최에 쏟아 주기를 기원한다"며 "이번 행사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민근기자

### NBA 샌안토니오 던컨 은퇴 선언 공식발표

미국프로농구(NBA)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포워드 팀 던컨(40)이 은퇴를 선언했다.

미국프로농구(NBA) 공식 홈페이지 NBA.com은 12일(한국 시각) "19시즌 동안 샌안토니오에서 활약한 던컨이 은퇴를 선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기자회견도 없이 조용히 코트를 떠났다.

1997년 NBA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샌안토니오에 입단한 던컨은 출골 한 팀에서만 선수 생활을 보냈다. 그는 샌안토니오에서 19시즌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팀의 5차례 우승(1999·2003·2005·2007·2014)을 이끌었다.

데뷔 첫 해인 1998년 신인왕 자리를 차지한 그는 두 차례 리그 MVP(2002·2003)와 세 차례 파이널 MVP(1999·2003·2005)를 수상했다. 그는 통산 1392경기에 출전해 통산 2만 6496득점, 1만5091리바운드, 4225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의 득점은 구단 최다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는 다음 시즌에 대한 계약 옵션을 실행해 복귀 여지를 남겼지만 지난 1월부터 악화된 무릎부상으로 결국 은퇴를 결정했다.

한편 ESPN에 따르면 던컨보다 한 발 앞서 코트를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는 "던컨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치열한 사람이었다"면서 "나는 던컨이 코트에서 보여준 모든 것을 사랑했다"고 설명했다.

/김민근기자

## 세계 골프 스타플레이어들 줄줄이 올림픽 불참 선언

### 치안·지카바이러스 등 우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개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국가에 구심점이 없다. 올림픽이 열리는 리우는 최근 재정 비상상태를 선포할 정도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불안한 치안은 고질적인 골칫거리이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4월까지 리우 지역의 살인사건 발생률이

전년대비 15% 상승했다. 노상강도 역시 24%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이슬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테러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올해 초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카 바이러스의 공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만큼 브라질과 리우의 상황은 좋지 않다.

지카바이러스는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고 일시적인 마비를 부르는 신경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공포감이 더해졌다.

선수도 사람인지라 이 같은 리우의 현지 상황을 감안해 여러 스타플레이어들이 리우올림픽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

12일(한국시간) 남자 골프 세계랭킹 3위 조던 스피스(미국)가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남자 골프는 리우에서 세계랭킹 1~4위 선수들을 볼 수 없다.

앞서 1위 제이슨 데이(호주), 2위 더스틴 존슨(미국), 4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지카바이러스를 이유로 출전을 포기했다.

이밖에 애덤 스콧(호주), 미겔 앙헬 히메네스(스페인), 마크 레시먼(호주) 등도 일찌감치 리우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 선수 중에도 남자 골프의 김경태가 2세를 위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고심 끝에 결정했다.

영국 BBC는 "주요 선수들의 불참은 어

렵게 올림픽에 복귀한 골퍼에 매우 좋지 않은 소식이다"고 보도했다.

미국프로농구(NBA)의 슈퍼스타인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판 커리(미국)와 클리블랜드의 르브론 제임스(미국) 등도 리우에 가지 않는다.

브라질 전 축구대표 히바우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리우올림픽을 볼 거면 목숨을 걸고 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브라질 정부가 리우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에 경찰과 군인 8만 5000명을 시내에 배치할 것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김민근기자

### 한국 U-20 배구 대표팀 3전 전승 8강 안착

제18회 아시아 청소년 남자 U-20 배구 선수권대회에 참가 중인 한국 U-20 배구 대표팀이 3전 전승으로 8강에 안착했다.

한국은 11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대회 예선 D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스리랑카를 3-0(25-20 25-20 25-20)으로 완파했다.

한국은 세 세트 모두 스리랑카의 추격을 20점으로 막았다. 초반부터 치고 나간 덕분에 별다른 위기 없이 경기를 마쳤다. 한국인(인하태)이 15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졌고 임동혁(제천산업고)과 김정호(경희대)가 각각 13점과 11점을 보냈다.

한국은 12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13일 트루크메니스탄과 8강 첫 경기를 갖는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